

# 新安海底 中國陶磁器의 種類

鄭 良 謨

一九七六年 十月로 부터 우리나라의 南西端 海域인 新安 앞바다에서 元代 船舶으로 推定되는 침몰선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一九七六年 十月과 十一月에 二次의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一九七七年과 今年에 二次의 본조사를 하여 도합 四次에 걸친 조사를 하였다.

本稿에서는 조사인양된 여러종류의 유물중 陶磁器에 대한 分類를 試圖해 보려고 한다. 陶磁器의 編年에 關하여는 別稿①를 發表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여 추가 바란다.

금년 八月十二日까지 조사 인양된 도자기류는 靑磁가 六四三五點、白磁 및 靑白磁가 三六六四點、黑釉(天目 포함)가 二〇八點、均釉系가 一五



圖 1、靑磁花瓶 元(一四世紀前半) 高四六·九cm 口徑二〇·五cm 底徑一一·四cm

五點、白釉黑花가 五點、雜釉陶器가 一二五九點등이며 이외에 토기가 약 간 있다.

## I 陶磁器 概觀

도자기중에 가장 많은것은 靑磁로 元代까지 도자기의 주류는 청자였다고 생각된다. 靑磁는 浙江省 龍泉窯產과 그 周邊의 龍泉系產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외에 소량이지만 南宋官窯를 모방한듯한 瓶類가 2~3點있으며 胎土가 검고 釉藥이 灰白色이고 氷裂이 있는 것으로 역시 官窯形의 香爐가 두점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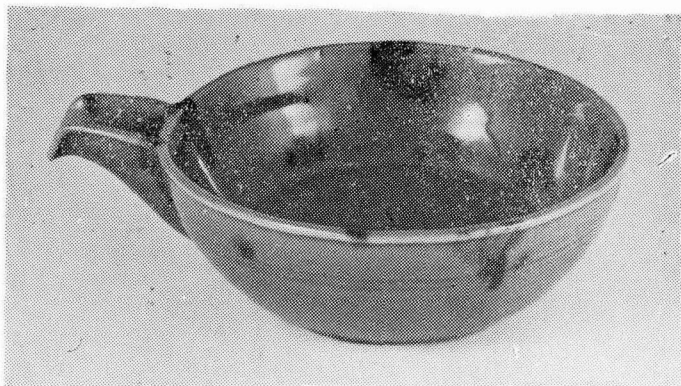


圖 2. 靑磁鐵斑文片口 元(14世紀前半) 高 5.6cm 口徑 20.3cm 底徑 9.1cm

다음 白磁와 靑白磁가 많으며 이것들은 江西省 景德鎮窯의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그 외에 江西、浙江、福建 등 地方窯의 이와 유사한 靑白磁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白磁는 景德鎮窯 中에서 樞府系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당량 포함되었으며 河北省의 定窯型이라고 할만한 것이 三點 있으며 卵白으로 窯地와 유형을 추정키 어려운 것이 三點있으며 역시 가마와 유형이 未詳이고 粗質이며 기벽이 두꺼운 白磁와 靑白磁가 있다. 黑釉에는 福建省建窯產인 소위 天目茶碗과 窯地未詳이며 胎土가 베이지색으로 거칠며 黑褐色도



圖 3 青磁陽刻牡丹菊文小注子 龍泉窯 14世紀前半  
高 6.8cm 口徑 3.2cm 座徑 5.2cm

는 茶褐色釉藥을 施釉한 小碗類들이 많다. 이외에 胎土가 베이져색이며 釉藥이 黑色으로 두꺼운것과 釉藥이 똑같으나 外底에 茶褐色의 釉藥을 입히고 黑色 釉藥위에 鐵分으로 縱線을 방사선으로 그은것이 있다. 이들은 역시 가마未詳이나 所謂 河南 天目이라고 하는것과 유사점이 있다. 이외에도 吉州窯産이라고 생각되는 褐釉插座小壺가 있으며 이 小壺는 적은 것이 많으나 2-3點이지만 아주 큰것도 있으며 같은 형태에 均釉가 施釉된 것도 있고 黑釉가 施釉된 것도 있다.

均釉系는 器形이 花盆, 水盤, 壺形水注等이며 北方의 元代 均釉와는 釉藥, 胎土등이 다른것으로 北方것을 모방한 南方의 것이 아닌가 한다. 北方것에 比하여 胎土가 거칠고 釉藥은 黑釉위에 겹칠 釉藥을 二重으로 施釉하였으나 辰砂發色인 紅色이 전혀 없으며 고운 하늘색의 發色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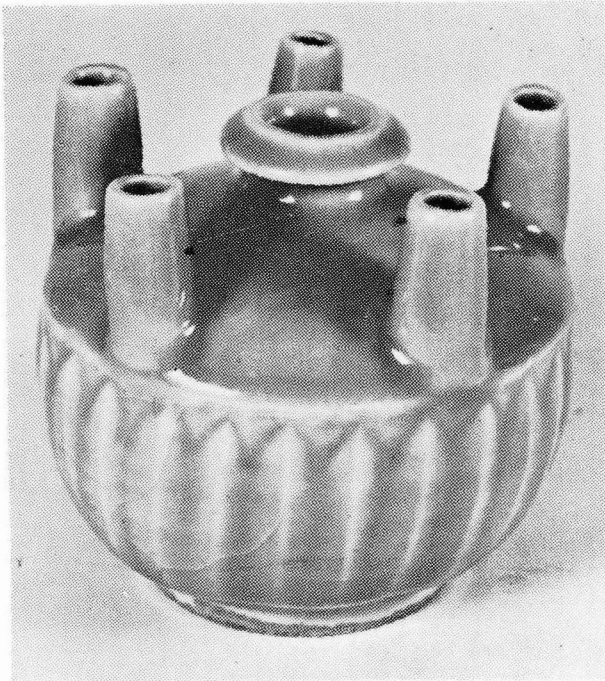


圖 4 青磁陽刻蓮瓣文多嘴瓶 南宋一元 龍泉窯  
高 11.5cm 口徑 3cm 底徑 7.2cm

다. 白釉黑花는 分明히 吉州窯②라고 생각되는 小瓶이 一點 있으며 그 외는 北方의 磁州系로 보이는 것이나 吉州窯가 磁州窯의 영향을 받았다고 ③하므로 혹 나머지 四點도 吉州窯産이 아닌가 한다.

II 陶磁器詳論

① 青磁

青磁는 前述한바와 같이 龍泉窯와 그 系統의 것이라고 생각되며 時代는 元代의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青磁는 접시와 碗類가 가장 많으나 그외 여러가지 다양한 器形이 있으며 큰 花瓶(圖1)과 향아리도 있으며 小形의 壺와 水注도 있다. 접시와 碗類는 口緣이 直口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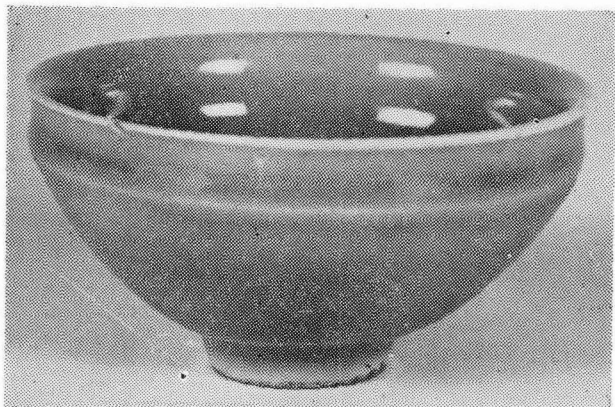


圖5 青磁 盃 南宋一元 龍泉窯 高 5.2cm  
口徑 10. cm 底徑 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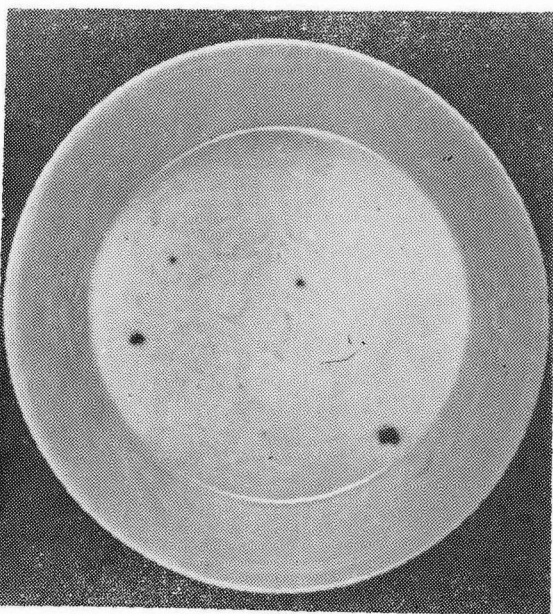


圖6 樞府系白磁陽刻菊唐草文皿 元 景德鎮窯  
高 4.7cm 口徑 12.2cm 底徑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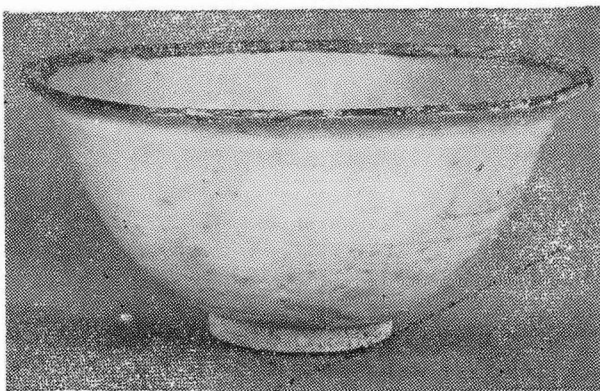


圖7 白磁盃「崑山玉出」銘 元 窯址未詳  
高 5.6cm 口徑 17.2cm 底徑 7.1cm

外反된 것이 많으며 釉藥은 褐色이나 黃褐色, 올리브색을 머금은 것이 많으며 胎土는 灰色이 대부분이나 灰이 白磁에 가까운 것도 있다. 文樣은 陰刻과 押出陽刻이 제일 많고 기타 貼花 象形 등이 있어서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맛이 있으나 한편 거칠고 치졸한 느낌이 있다. 굽의 정리도 일정치 않으며 예리하게 째아낸 것은 거의 없다. 수많은 五·六點이지만 鐵斑 青磁가 섞여있다. 이철반청자(圖 2)(飛青磁)는 다른 것에 비하여 器面이 매끄러울고 釉色이 고운올리브색을 머금고 있다.

元代의 이들 青磁는 日本에서도 發見되지만 比律賓을 中心한 東南亞에서 발견해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Oriental Ceramics Discovered in philippins (By Leandro and Cecilia Locsin) Chineseische Keramik auf den philippinen의 冊을 보면 大花瓶, 大壺 등 커다란 그릇은 없이

나 小注子 귀가 달린 小壺 大盤, 접시 와형종지 항로 등 신안해저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것이 많으며 小注子 小壺(圖 3) 귀가 달린 小壺 등은 비올빌 등 東南亞以外에서는 발견해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粗質의 青磁에 비해 釉藥이 아름답고 器形이 엄정하고 세련된 器皿이 五·六〇點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從來 南宋 盛期의 것들이라고 하던 것이다.(圖 4, 5)

碗類는 口徑이 直이며 굽의 정리는 모두 예리하고 굽밑부분은 露胎이며 露胎色은 진한 鐵褐色인 것과 담담한 褐色인 것이 있다. 釉藥은 두껍고 질은 비취색인 것과 녹색을 머금은 것이 있으며 文樣은 無文이 많고 碗皿類의 外側에 分明한 陽刻의 蓮瓣文이 있으며 이 蓮瓣文은 元代라고 하던 것과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타 貼花文과 상형장식이

약간 있다.

② 白磁와 靑白磁

白磁와 靑白磁는 從來 반드시 區分하여 論한 경우도 있고 區分하지 아니하고 廣意의 白磁의 범주내에 넣어 區分치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간혹 區分하는 것도 區分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는 편의상 白磁(樞府系), 기타 白磁, 靑白磁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白磁—白磁는 이번엔 海底에서 여러가지가 出土 되었다. 우선 樞府系 ⑤(圖 6) 白磁를 들 수 있다. 물론 「樞府」、 「福祿」 등의 명문은 없으나 器形、文樣 등이 「樞府」銘文이 있는 樞府系白磁와 거의 비슷하고 「樞府」「福祿」 등의 명문이 있는 위치인 內側面 上部 양쪽에 「玉」「王?」「正」 또는 의미 未詳의 八思巴文字 같은 銘文이 있는 것이 있다. 器形은 靑白磁보다 훨씬 예리한 線을 갖은 것과 훨씬 부드러운 曲線을 갖은 것이 있으며 文樣은 거의 押出陽刻으로 비교적 선명하다. 胎土도 硬質이며 釉藥도 硬質로 氷裂이 없고 全面에 施釉하였으며 굽다리 밑에만 露胎이다. 伏燒는 하나도 없고 굽이 比較的 크고 안정감이 있다. 이러한 白磁는 所謂 分明한 「樞府」銘 白磁가 나오기 바로 전 단계의 것이거나 혹은 「樞府」銘 白磁가 登場한 初期것으로 一時 이때까지 併行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良質의 白磁 이외에 몇가지 粗質이고 異質인 白磁가 있다. 첫째 「崑山玉出」「自然衣食」「福祿」 등 銘文과 植物의 印사키 文樣이 印文陰刻으로 碗의 內底에 있는 것이 있다(圖 7). 전체적으로 약간 靑이 지색을 머금고 있으며 굽과 굽 주변에는 施釉가 없고 口緣에도 施釉가 없으며 氷裂이 없고 伏燒라고 생각되며 口緣에는 금속테가 반드시 있다. 굽의 정리는 크고 힘이 있다. 이것과 비슷하나 時代가 일세기쯤 올라가리라 생각되는 것이 日本의 今津古墓에서 發見된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發見예가 있다.

둘째로 三點뎡에 發見되지 아니하였지만 또다른 白磁가 있다. 表面이

베이지색인 길은 卵白이며 氷裂이 있고 釉藥과 胎土가 약간 軟質이며 굽 밑에 施釉가 없으며 굽의 정리는 매우 깨끗하다. 이 器形中에는 香爐가(圖 8)一點 포함되어 있는데 龍形 장식이 蒙古의 呼和浩特市 東郊에서 出土한 「己酉」年銘 鈞窯大香爐⑥의 龍形 장식과 똑같아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白磁는 器形과 굽의 정리 등은 매우 세련되었으나 窯址 등은 未詳이다.

셋째로 河北省 定窯産 白磁와 흡사한 白磁(圖 9) 큰 접시가 三點뎡에 發見되었다(一點은 약간 다르다). 釉藥이 얇고 全面에 施釉 되었으나 口緣에 施釉가 없으며 金屬테를 두른 자국이 남아 있다. 內面에는 押出陽刻 文樣이 섬세하고 예리하게 나타나 있다. 器壁도 얇고 굽도 깨끗하게 깎아내였으며 施釉할 때 굽을 잡은 흔적이 남아 있다. 이들 白磁의 器



圖 8 白磁香爐 元 窯址未詳

高 13.3cm 口徑 14.2cm 底徑 9.5cm

벽이 아주 두껍고 釉藥이 굵과 굵주연에 시유되지 아니하고 투박한 잡  
기류가 數種있다.

靑白磁—前述한 바와같이 靑白磁와 白磁는 매우 區分하기 어려운 것  
이 있으며 역시 그 이유는 점차 도자기의 큰주류가 硬質白磁로 移行되  
는 과정에서 宗親의 靑白磁들이 硬質白磁化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  
니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매우 애매한 것을 포함하여 세가지 類形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從來의 의견대로 누가보아도 쉽게 靑白磁  
라고 할만한 것들이다. 접시나(圖 10) 대접류가 九할을 차지하고 일할

정도가 버개, 병류, 주전자, 향로(圖 11) 향아리, 연적과 아주 小形의  
明器와 같은 기명들이다。(圖 12) 이 중에서 접시나 대접류등은 약간 粗  
質이고 병류등 큰 물건은 良質이다. 접시와 대접류는 器壁이 얇고 굵  
이 아주 작으며 거의 전부의 內面에 押出陽刻文樣이 있으며 文樣은 선  
명치 아니하다。全部의 口緣에 施釉가 없고 얇은 금속질의 넓은 테두리  
가 있으며 굽에는 시유한 것도 있고 시유후에 흠어낸 것도 있다。이 靑  
白磁中에 일부 器形은 樞府系 白磁와 흡사한 것이 있으며 특히 접시중  
外側 中央部位쯤에 陽刻의 帶線이 있는 것은 거의 같아서 매우 흥미가  
있다。이들 靑白磁와 樞府系 白磁가 다른 點은 많으나 몇가지만 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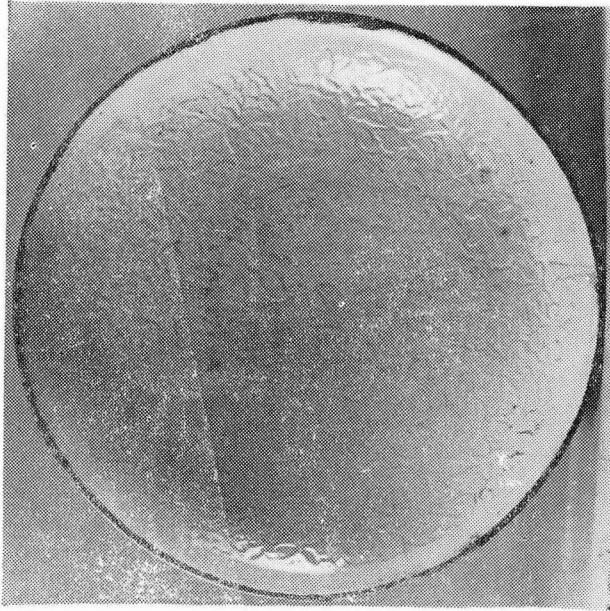


圖 9 白磁陽刻花卉文銀鉗접시 元 定窯型  
口徑三五cm 高六、七cm 底徑一一、九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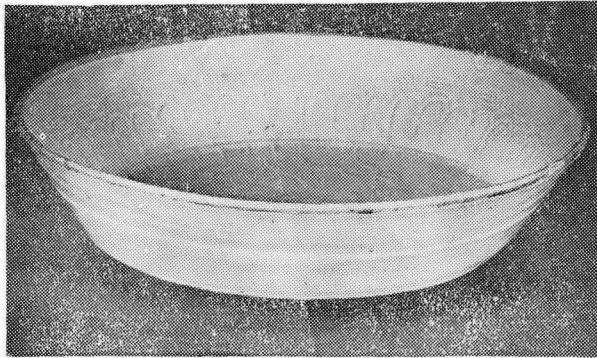


圖 10 靑白磁陽刻雲龍文접시 元 景  
德鎮窯口徑二〇、八cm 高  
五、六cm 底徑一七、二cm



圖 11 靑白磁陰刻牡丹唐草文香爐 元 景德鎮窯  
高一四、一cm 口徑一一、一cm

들면 다음과 같다. 樞府系白磁에 比하여 靑白磁의 굵이 훨씬 작으며 白磁는 굵밀과 굵안출 등 外底에 施釉가 없는데 靑白磁에는 대부분 施釉하였으며 일부 施釉후 흠어낸 것도 있으며 樞府系는 口緣까지 全部 施釉한 데 比하여 靑白磁에는 口緣에 施釉가 없어서 모두 伏燒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樞府系의 器形이 엄정한 세련미가 있는데 比하여 靑白磁에는 그러한 맛이 없다고 하겠다. 주요는 적으나 靑白磁中에는 器壁이 약간 두껍고 胎土가 灰白이며 釉藥역시 灰白이며 文樣이 거칠은 것들도 섞여있다. 이와 같은 靑白磁 접시나 대접 이외에 瓶, 壺 등 커다란 器形들은 質이 훨씬 우수하고 釉藥을 全面에 施釉하였으나 굵밀과 굵안에만 施釉가 없다. 文樣은 陰刻, 象形 押出陽刻 등이 있으며 器形도 다양하고 硯滴 등 小形 그릇들은 틀(型造)로 제작한 것도 있다. 이중에 편편한 小水注와 鳳凰形 硯滴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비유빈 등 東南亞에서 주로 發見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들 접시와 대접 그리고 커다란 器形中에는 구울때가 마내에서 탄소분이 釉藥내로 스며들어 꺼렇게 變色된 것이



圖 12 靑白磁小瓶元 景德鎮窯  
高13.7cm 口徑 2.2cm

약간 포함되어 있어서 辰砂發色の 失敗作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 上記와 같은 접시 대접류와 瓶, 壺 등류 이외에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實用보다는 副葬用이나 특별한 의식용이 아니었던가 한다. 모두 받침이 달린 香爐形과 瓶(圖 12 참조)으로 釉藥은 表面 全面에 施釉되고 받침의 內面 등에는 施釉가 없다. 모두 틀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두 쪽들의 이음새가 받침대 내면 양측면에 나타나 있다. 이들 小器皿도 비울빈을 中心한 東南亞一帶에서 많이 발견되고 기타 지역에서의 발견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둘째로 釉胎의 質과 器形과 文樣 등이 첫번째의 靑白磁보다는 일등한 것이 있으나(圖 13). 器壁이 보다 얇으며 그릇의 側面部 이외에 바닥까지 고루 얇아서 전체가 반투명체 같다. 釉藥은 대단히 매끄럽고 약간 靑色을 머금었으며 器壁은 아주 얇지만 Beaded Pattern 형 장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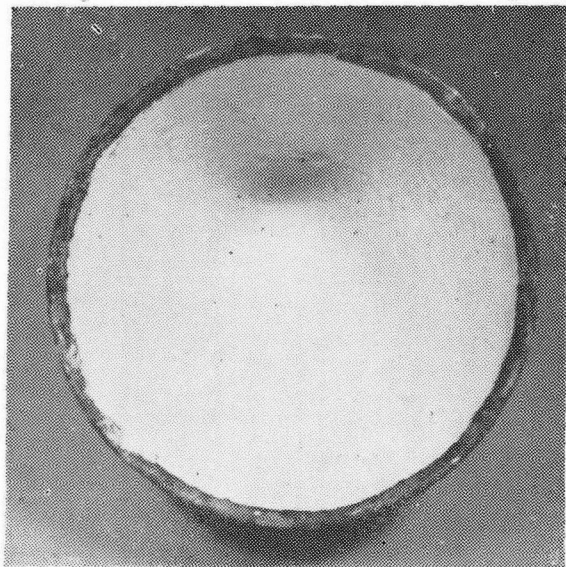


圖 13 靑白磁陽刻蓮魚文鉢元 景德鎮窯  
口徑 14.5cm 高 6.1cm 底徑 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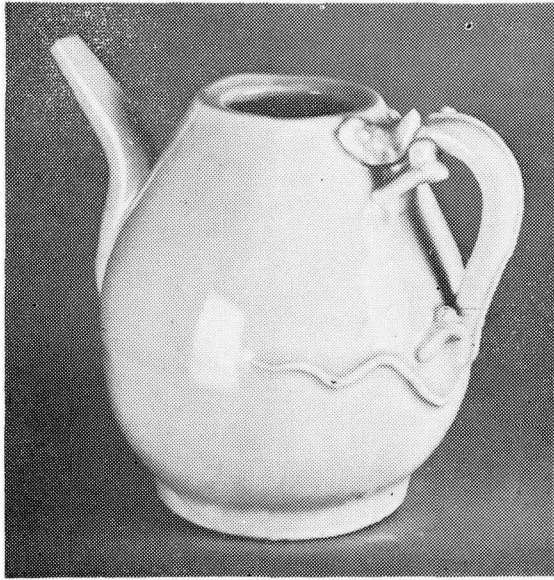


圖 14 白磁注子 元 景德鎮窯  
高 8.6cm 口徑 3.8cm 底徑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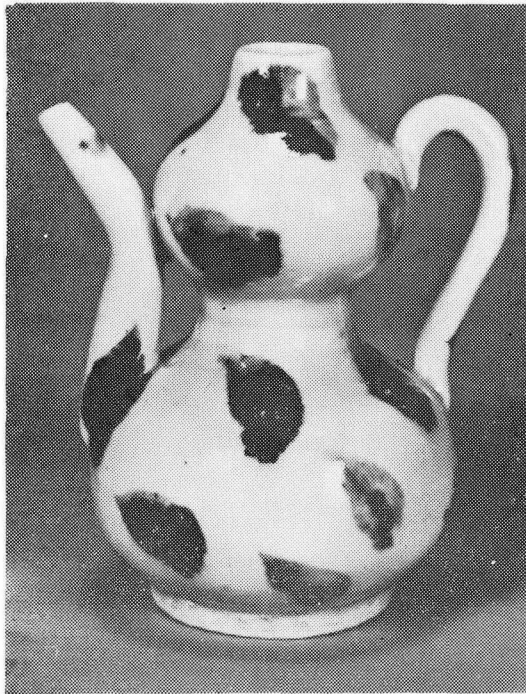


圖 15 白磁鐵斑文瓢形注子 元 景德鎮窯 高 11.8cm  
口徑 1.8cm 底徑 4.6cm

天目과 흡사  
소위 河南

갈다.

窯産과 거이

며 釉藥은 建

(四點) 있으

形茶碗이 三

한 形態의 異

이 거이 직립

색이며 側面

이 거나 厚갈

가 베이지색

되었다. 胎土

속에서 發見

따로 木箱子

이 있다. 모두가 兎毫天目으로 口緣에 금속테가 있는 것  
二點(圖 16)이  
前술한 바와같이 黑釉系는 天目과 黑釉가 있다. 天目系에는 建窯의  
茶碗과 소위 河南天目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建窯의 茶碗은  
口緣으로 볼 때 모두 세가지가 있으며 세가지중에는 다시 크고 작은 것

③ 黑釉

라고 하겠다.  
發見된 것들이며 特別히 鐵分斑點이 있는 것은 비올빈 이외에서는 東南亞에서  
가 없다(圖 15)고 하므로 이때의 向方問題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자료

는 器形등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全面에 施釉하였으나 口緣에만 施釉가  
없고 역시 얇고 넓은 금속테두리가 口緣에 씌워져 있다. 器形은 세가지  
의 대접류가 있는데 모두 口緣에 施釉가 없고 굽이 예쁘고 아주 작다.  
文樣은 押出陽刻으로 細波내에 蓮魚文이 있는 것과 각종 花卉文이 있는  
것과 無文인 것이 있다. 이들 青白磁는 일반적인 青白磁에서 특히 발전  
시켜 宮廷用등의 수요에 응하려 한 것과 같이 보이며 이때까지 발전한  
景德鎮窯 青白磁의 최상품이라 생각된다. 또 한가지 여기 나타난 文樣  
은 첫번째의 青白磁보다는 文樣이 섬세한데도 보다 뚜렷이 나타나 있으  
며 이러한 文樣이 元代 青華白磁 文樣의 일부와 相通한 點이 있어서 元  
青華白磁 文樣의 生成發展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는 樞府系 白磁와 大形青白磁의 質과 共通點이 있는 器皿들이  
다. 이 종류들은 사실 青白磁에 가까운 것도 같고 白磁에 가까운 것도

같다. 器形은 小形瓢形注子和 小形注子(圖 14)、 騎牛童子形硯滴、花形  
접시、표주박、小瓶 등이며 器壁은 비교적 얇으며 全面에 施釉되었고 굽  
등 底部에는 施釉가 없고 露胎는 白色이다. 이들중에서 瓢形注子和 騎  
牛童子形硯滴에는 鐵分斑點이 있는 것이 七~八點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  
몇점은 이때까지 발전에 없으나 대체로 이러한 기형들이 東南亞에서

한 종류는 昨年까지는 한 종류만 發見되었다. 昨年까지 發見된 것은 항아리 병 등이 있으며 胎土는 베이지색으로 거칠며 釉藥은 漆黑으로 光澤이 있고 굽주위등 下部에 施釉가 없다. 施釉時에 어떤것은 下部에 갈색의 黑釉를 입히고 난다음 上部로 부터 釉藥을 석워 일부는 黑釉위에까지 덮히거나 흘러내린 것이 있다. 今年에는 이와같은 항아리와 병 등도 發見되었지만 유약위에 鐵分으로 선을 그은 것이 발견(圖 17) 되었으며 종류도 다른 유형의 병과 대접류 등이 나왔다.

대접류는 거의 전부 外面下部에 黑釉를 파르고 上部로부터 다시 光澤이 있는 天目釉를 입혔다. 鐵分의 線은 放射線으로 주축 그었으며 팔



圖 16 天目銅鉤茶盞 元 建窯 口徑 11.8cm 高 6.6cm 底徑 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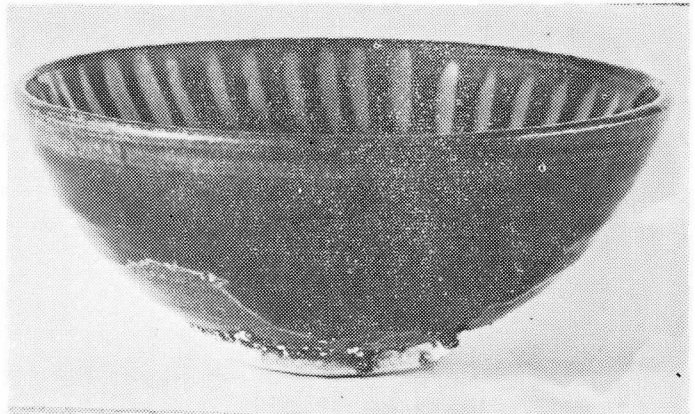


圖 17 黑釉綉線文盃 元 窯址未詳 口徑 15.4cm 高 6.7cm 底徑 5.8cm



圖 18 黑釉盃 元 口徑 11.2cm 高 4.3cm 底徑 3.7cm

막 팔막하게 二重으로 그은 것도 있다. 대접류는 胎土가 항아리류보다 달라서 硬質이며 베이지색을 머금었으나 靑磁胎土와도 유사하다.

新安에서 發見된 黑釉中 가장 많은 것은 베이지색으로 약간 거칠며 胎土에 黑褐色 또는 暗褐色 釉藥이 施釉된 적은 碗類들이다. 口緣은 약간 內灣 되었고 그릇 外面엔 물레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굽의 정리도 투박한 잡기로 유약은 外面下部에는 施釉가 없다. 이러한 碗類는 비올빈에서는 발견에가 드문것 같고 일본에서는 비교적 많은 것 같다(圖 18) 가 마는 未詳이며 福建、江西、廣東省 등지에 이러한 黑釉의 가마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圖 19 青磁花盆 元 龍泉窯 高 7.5cm  
口徑 23.6cm 底徑 8.9cm



圖 20 黑釉花盆 元 龍泉窯  
口徑 11.2cm 高 8.4cm 底徑 5.2cm

같은 黑釉지만 釉藥과 碗의 形態가 조금씩 다르고 口緣에만 青磁釉와 白磁釉를 施釉한 조금 커다란 碗이 두개 發見된 것이었다. 이들과 또 다른 흑유계통(어떤것은 鐵釉와 흡사)의 小瓶과 小壺들이 多數있다. 이들 黑釉중 小瓶들은 釉藥이 天目같이 검고 두터우며 小壺들은 胎土가 陶質이며 鐵砂釉같이 얇고 鐵呈色을 머금고 있으며 前者는 全面에 施釉된것과 同. 下部에 施釉가 없는 것이 있으며 器形도 서너종 류이나 後者는 器形이 한가지이며 下部에는 施釉가 없고 平底로 實로 바닥을 드러냈다. 이들중 前者는 비올빈등 南方에서 發見된 것이 많다. 小形 기명의에 黑釉 四耳大壺가 십여점 發見되었으며 肩部에 印文으로 「清香」 「天寶」 「寶」 등 銘文이 있다. 큰것은 높이가 60cm 정도이며 釉藥의 色은 대체로 褐色 黑褐色이며 흑갈색에 보라색이 감도는 것도 있다. 이러한 四耳大壺도 역시 비올빈등 東南亞에서 發見에가 많다.

작년에는 青磁花盆(圖 19)이 수십개 인양되었는데 今年에는 이 청자 化本이 몇개밖에 나온것이 없으나 청자 化本과 똑같은 형태의 흑유化本(圖 20)한점이 發見 되었다. 청자 化本의 發見에는 세계적으로 아즈드 문것 같으며 產地는 龍泉窯系가 아닌가 생각되었으므로 이와 형태와 양식이 똑같은 흑유化本도 龍泉窯系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黑釉와 흡사하나 釉面이 곱고 褐色이 감도는 釉藥이 내면에만 施釉되고 外面은 施釉후에 깨끗이 흡어낸 異形의 향아리들이 있다. 器體全面에 同心圓形의 陰刻線이 있고 頸部에 특특 튀어나온 乳頭文帶가 있으며 乳頭에는 白色(淡青色)의 釉藥이 施釉되었다. (圖 21) 이러한 異形壺가 大小 십여점인데 形態는 같으나 釉藥으로 보아 세가지가 있으며 前述한 것이 가장 많다.

한종류는 外底를 除外한 內外 全面에 漆黑의 黑釉를 시유하였으며 器體에 陰刻線은 없고 頸部에 乳頭文帶가 있으며 各乳頭에는 白磁釉가 시유되었다(圖 22). 또 한가지는 內外 全面에 均釉를 施釉한 후에 外面의 釉藥은 전부 흡어내고 頸部の 乳頭에만 施釉하고 器體面에 陰刻線이 있다. 今年에 發見된 黑釉中에는 世界的으로 유례가 없는 黑釉牡丹文梅瓶이 있다. 全面에 黑褐色 釉藥을 입히고 牡丹文樣은 釉藥으로 나타내고(釉面은 그대로 두고) 牡丹文과 牡丹文의 餘地 즉 間地의 釉面은 斜格子로 세밀하게 음각하여 牡丹文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器形이 힘있으며 外底를 드러내서 만든 굽도 힘이 있다(圖 23).

④ 均釉



圖 21 褐釉乳頭小壺 元 吉州窯  
高 8.7cm 口徑 8.8cm 底徑 4.5cm



圖 22 黑釉乳頭文小壺 元 吉州窯  
高 12.9cm 口徑 10.7cm 底徑 6.3cm

其他  
其 全部가 中國陶磁器인데  
其中에 高麗靑磁가 三點 日本  
것이 一點 포함되어 있다. 우  
리나라것은 梅瓶이 하나, 대접  
이 하나, 탁잔의 잔받침이 하

土器는 四耳가 달린 大壺와  
人形에 黑色으로 加彩한 것등  
이 있다. 四耳大壺는 器壁이  
얇고 거치른 胎土이며 飲食物  
을 넣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人形은 밑에 구멍이 있고 속이  
비었으며 속에 알맹이가 들어  
있어 흔들면 방울같은 소리가  
난다.

均(鈞)釉系는 器形으로는 花盆이(圖 24) 가장 많으며 다음 水盂이며 다음 壺形水注가 몇點 있다. 대단히 거칠고 鐵分등 雜物이 많은 胎土위에 먼저 暗褐色의 黑釉를 입히고 그위에 灰靑色의 灰釉를 다시 입혔다. 表面의 色은 灰色과 보라색을 비친 靑色이 혼합 되었으며 辰砂發色인 紅色은 없다. 굽은 下部에는 施釉가 없다. 河南省 均窯의 영향이 南方으로 내려와 南쪽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北方의 元鈞窯產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다.

⑤ 白釉黑花

白釉黑花는 향아리가 二點, 瓶이 一點, 뚜껑이 二點이다. 세가지 유형이 모두 저질의 胎土위에 白土化粧을 하고 그위에 鐵分顔料로 그림을 그린것인지 아니면 胎土自體가 약간의 베이지색이 감도는 白色인지分明치 않다. 이중 瓶 한점은 全面에 唐草文을 그리고 胴體 兩面에 花形  
區를 설정하고 그안에 한쪽에는 꽃가지처럼 한쪽에는 파도문을 그렸다(圖 25)이와 똑같은 것이 江西省 南昌에서 發見된 것이 있으며 文樣이 吉州窯와 똑같으므로 이 瓶은 吉州窯產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나머지 유형도 磁州窯의 특징도 있으나 후 吉州窯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⑥ 雜釉陶器

雜釉陶器는 胎土가 저치나 耐火性이 강한 胎土위에 鐵分이 많은 釉藥을 입힌 것으로 茶 혹은 다른 음식물등을 넣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形態는 세가지쯤으로 四耳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으며 四耳가 없는 것은 모두 훌룩한 것과 약간 풍만한 것으로 區別된다(圖 26·27) 質도 四耳가 있는 것과 四耳가 없는 것중 훌룩한 것이 더 단단하다. 이러한 유형의 향아리들은 韓國에서도 發見例가 있으며 日本에서도 發見例가 많으며 비유빈등 東南亞에서도 약간의 發見例가 있다.

⑦ 土器

나이다. 高麗靑磁中靑磁陰刻蓮唐草文梅瓶은(圖 28) 十二世紀前半 것이며 靑磁象嵌雲鶴文大碟은 十二世紀 中葉、靑磁象嵌蓮唐草文盞臺는 十三世紀前半頃으로 생각된다. 日本製品은 瀬戶燒靑磁杀梅瓶一點(圖 29)으로 印文으로 된 牡丹文이 있으며 袖樂의 탈락이 심하다.

編年問題

編年上の 문제와 가마문제 등은 앞으로 조사가 완결될 때까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년문제는 昨年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국제심포지움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술코져 하나 今年에 몇가지 새자료가 발전되어 여기言及코져 한다.

지금까지 中國의 各種 동전이 一〇〇萬點을 인양 되었으며 아직 도船底에 많다고 한다.

대략 조사한 결과 五三種의 동전이 있으며 가장 시대가 내려오는 것

圖 23 黑釉牡丹梅丹瓶 元窯址未詳 口徑 5, 4 cm 高 72, 8 cm 底徑 8, 5 cm



이 至大通寶(一三二〇年 주조)였다. 그러므로 우선 이들 유물의 上限은 一三二〇年 이후로 볼 수 있다. 元代에는 至大通寶가 最初로 주조한 동전이며 다음 一三五〇년에 두번째 주조한 至正通寶는 발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下限은 一三四九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겠다.

三六〇〇여점의 靑白磁 白磁中에 靑華白磁나 辰砂白磁가 한 점도 없다

는 것은 辰砂나 靑華가 발생하기 以前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今年 조사에서 나온 三點一括의 漆器中에 銘文이 있는 것이 一點 있다.

銘文은 「辛未兮塘陳萬一叔造」라고 고동색 마탕에 朱書했다. (圖 30) 辛未는 一二七一年 一三三一年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확인할 수 없지만

一三三一年의 辛未라면 上限이 一三三一年 되는 것이다.

圖 24 鈞袖花盆 元(南方窯) 口徑 29, 2 cm 高 21, 8 cm 底徑 10, 5 cm



註

- ① 拙稿 「一七七六、一九七七年 查調 新安海城陶磁器의 編年的」 考察考古美術 一三六、一三七合 輯號 樹默泰弘變博士華甲紀念論文集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八年 二月
- ② 註①에 제시한 拙稿中の 註⑥ 참조 「江西土的 幾件宋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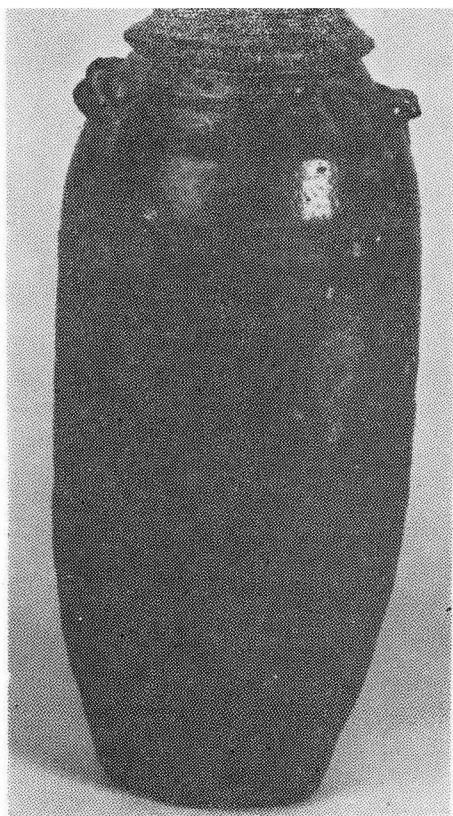


圖 26 雜釉四耳壺 元 口徑六、五cm 高二六、六cm 底徑七、三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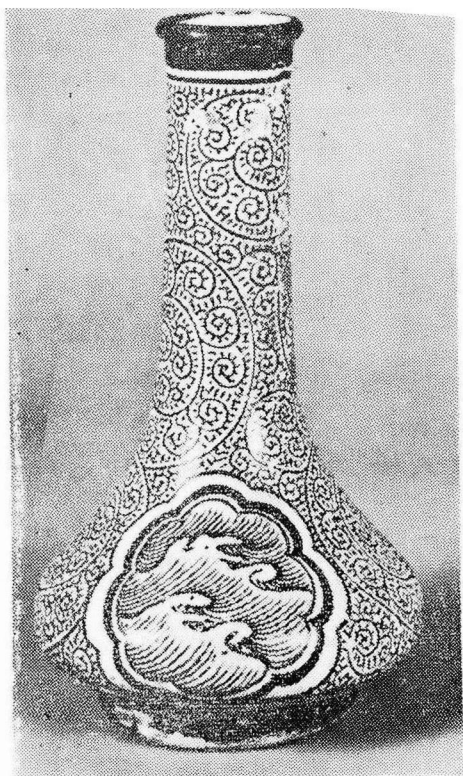


圖 25 白釉黑花唐草文小瓶 吉州窯  
高 14.6cm 口徑 2.9cm 底徑 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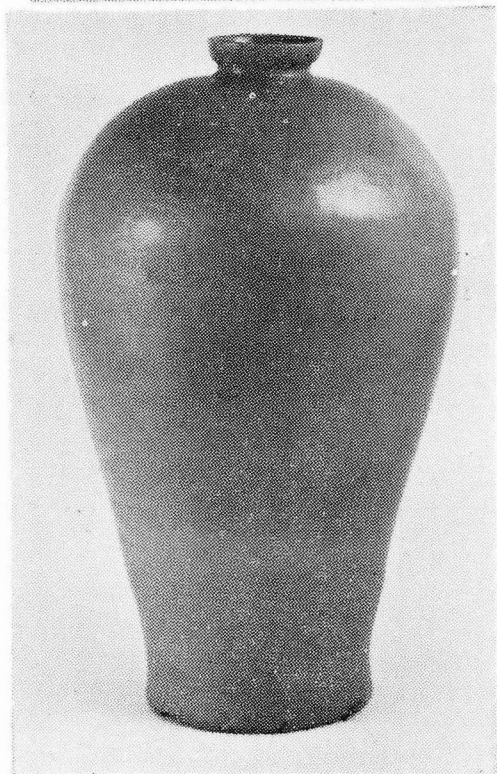


圖 28 青磁陽刻牡丹唐草文梅瓶 高麗時代  
12世紀前半 康津窯 高 27.3cm 口徑  
5.2cm 底徑 1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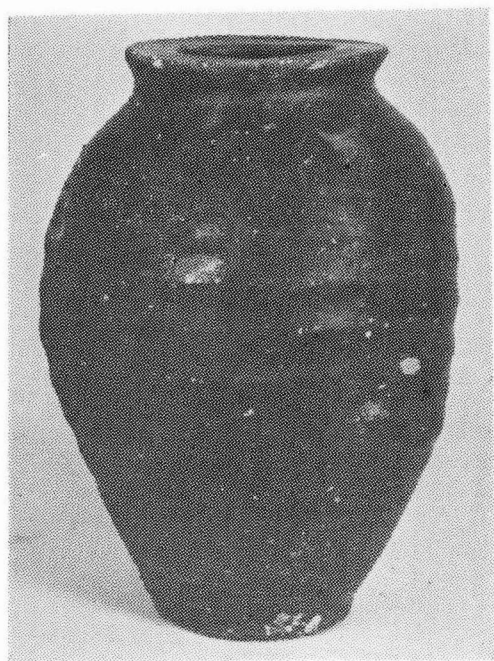


圖 27 雜釉陶壺 元 口徑 6cm 高 15.2cm  
底徑 5.2cm

代 吉州窯瓷器」陳相泉 文物 一九七五年 三期「介紹江西出土的幾件瓷器」唐昌朴 文物 一九七七年 四期  
 上記二篇의 論考中에는 新安海底에서 나온 것과 器形、文樣 등이 거의 같은 吉州窯産 白釉黑花器血이 있음.

③ 白釉黑花 河南、河北에서 많이 生産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近年에 江西省 吉州窯에 대한 조사보고가 점차 알려짐에 따라 吉州窯에서 만들어진 白釉黑花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吉州窯의 白釉黑花가 磁州窯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我國陶器發展中の幾個問題、馮先銘 文物 一九七三年 七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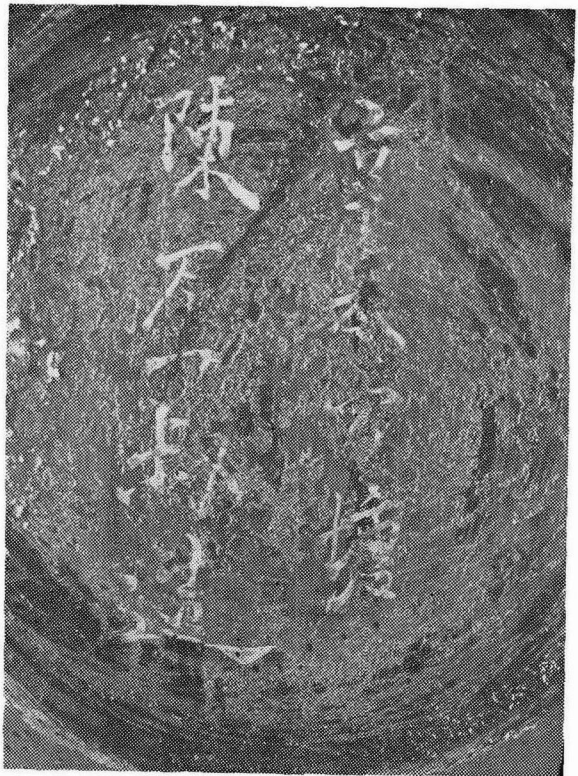
④ 陶磁器 概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靑磁가 發見되었다. 한 종류는 從來에도 元代靑磁라고 하던 것이나 그중 一部는 從來에 明代 靑磁라고 하던 것이었다. 이들 靑磁가 거의 대부분으로 九八~九九%가량이다. 新安海底에서 발견된 자료의 編年은 대체로 一四世紀前半期라고 생각되므로 從來에 明代라고 한 것은 잘못이며 元代靑磁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圖 29 瀬戸燒靑釉牡丹文梅瓶 日本鎌倉

時代 口徑 4 cm 高 26、2 cm 座徑 9、8 cm



圖 30 「辛未」銘漆器盤外底



또 한 종류는 전체 靑磁의 一~二% 정도의 小數이지만 從來에 南宋代라고 하던 것이다. 昨年 國立中央博物館이 주최한 「新安海底文物 國際學術大會」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되었다. 대체의 결론은 從來 南宋代라고 한 것은 역시 잘못이며 元代 靑磁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후에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分明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⑤ 元代 景德鎮白磁의 一部 上品中에는 그릇 內側面에 「樞府」、「福祿」 등의 銘文을 印文陽刻으로 나타낸 것이 있다. 이들 良質白磁를 通稱 樞府白磁라 한다. 註①에 제시된 拙稿中 註② 참조

⑥ 「呼和浩特市 東郊出土的幾件 元代瓷器」 文物 一九七七年 五期

⑦ 「宋 元代的 貿易陶磁器」 三上次男 新安해저문물 국제학술회의주제발표 一九七七(國立中央博物館刊)

(國立中央博物館 首席學藝研究官)